



"기회는 공정하게! 희망은 다같이!"

다 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

보도자료

제공일 : 2011. 12. 14.
제공사 : 허베이스피리트피해지원단
과 장 : 이 영 직
사무관 : 김 용 득
전 화 : 500-2251
쪽 수 : 3P
별첨자료 : 있음(11P)

이 자료는 2011년 12월 15일 조간 이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갯벌참굴」 명품화, 수출산업화의 뜻을 올리다 !

- 갯벌참굴 개발 및 어장환경 복원사업 등에 '19년까지
1,600억원이상 투자 -

< 주 요 내 용 >

- ◆ 2007년 태안 유류오염사고지역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한 갯벌 참굴 시범사업 출범 기념행사(12.14(수), 11:00, 태안이원방조제)
 - 잡는어업에서 기르는어업으로의 신수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전환계기
 - 연간 30억원 3개년간 총 90억원 투입(50ha 조성), '11년의 경우 시범사업으로 30억원을 투입하여 10ha를 조성
- ◆ 갯벌참굴은 기존의 수하식형태와 달리 '수평망식'으로 주기적 노출을 통해(연중생산 가능) 상품가치가 높아 해외에서 인기
 - 기존의 갯벌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료 투입이 없는 친환경적
 - '19년까지 1,600억원을 투자, R&D·최적지 개발 등 지속 추진
 - 홍콩박람회 등에서 호평, 미국·EU 등으로 새로운 수출산업화 모색
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2007년도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유류오염 사고와 관련 유류피해지역내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「갯벌참굴 시범사업」 출범 기념행사를 이번 12월14일 태안군 이원지구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□ '갯벌참굴'은 기존의 수하식형태로 키우는 양식방법과는 달리 서해안의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날개형태로 연중 양성하는 유럽형 방식으로 신선하고 맛이 좋아 홍콩, 유럽 등 해외에서 상품가치가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,

○ 한미, 한·EU FTA체결에 따른 미국, 유럽시장의 확대에 따른 우리 갯벌양식어업을 글로벌 경쟁력으로 키우기 위해 새로운 자본·기술·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전략적인 산·학·연 협력사업이며,

○ 어업인은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고 종묘생산·가공·유통은 전문업체가 전담하며 공공기관이 공정하게 경영을 관리하는 '신개념 어업모델 형태'로 추진하게 된다.

○ 갯벌참굴사업은 기존의 갯벌환경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료 투입이 없는 친환경적 양식어업으로, 시범사업기간에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·교습어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며, 또한 일반 어업인, 수산계 대학생 등에게 누구나 교육·실습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율성도 극대화할 방침이다.

< 갯벌참굴 시범사업 개요>

- ◆ 위치 : 태안군 이원면 이원방조제 지선
- ◆ 투자계획 : 연간 30억원 3개년간 총 90억원 투입예정(50ha 조성)
 - 1차년도('11년, 30억원) : 양식어장(10ha, 연구교습어장), 시설규모(5,400셋트), 종묘입식(약 6,500천개)
- 갯벌참굴 : 남해안에서 생산되는 참굴과는 달리 서해안 갯벌에서 조석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수평망식으로 날개로 유통, 불임굴로 연중생산가능

- 농림수산식품부는 2020년 이후에는 세계 수요의 약 20%(1조5천억원) 생산(19만톤)을 목표로 갯벌참굴 양식을 세계적인 명품화 사업으로 집중육성하고 지속적인 어장환경복원사업 등을 위해 '19년까지 1,600억원('11년 205억원)이상을 투자하여
 - 갯벌참굴의 우량종묘를 안정적으로 생산·공급하기 위한 유전형질조사 등 R&D를 강화하고 갯벌양식의 최적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2020년 이후 연간 약 4조원의 소득을 창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- 농림수산식품부 관계관은 “지난 12월초에 홍콩박람회에서 우리나라 갯벌참굴이 외국산에 비해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어 신선하고 짜지 않으며, 씹는 식감이 뛰어나 상품성이 좋다는 현지 바이어들의 호평을 받았으며, 갯벌참굴의 위생과 안전성이 입증될 경우 향후 새로운 수출상품으로 전망이 밝을 것”이라고 설명했다.
 - 이와 함께, 2012년에는 우선 시장성이 입증된 홍콩과 일본 등을 중점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실시하여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고 새로운 유럽시장 진출을 위해 소비·유통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규 해외시장개척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.
 - 또한,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갯벌어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「갯벌양식어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」의 제정안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이며,
 - 갯벌어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을어업에 양식어업을 허용하고 외부 자본 유치 및 새로운 인력진입을 위해 어업권 임대차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규제완화를 위해 「수산업법」도 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.

갯벌참굴 시범사업 출범기념 행사 계획 및 주요일정(안)

가. 행사개요

< 행사개최 배경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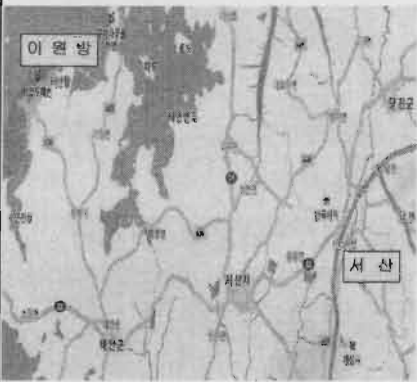
- ◆ 부가가치가 높은 갯벌참굴을 새로운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성공을 기원하고 어업인들의 관심 고조

- 일 시 : '11. 12. 14(수), 11:00~
- 장 소 : 태안군 이원방조제 관리사무소(한국농어촌공사)
- 주 최 : 농림수산식품부, 태안군
- 주 관 : (특)한국어촌어항협회
- 인 원 : 약 300여명(정부, 지자체, 연구소, 학계, 업계 등)
 - 주요인사 : 농식품부 2차관, 충남도지사, 태안군수, 국회의원 등

나. 주요 행사내용

- 갯벌참굴 시범사업 출범 기념행사
 - 기념식(개회식, 차관 환영사, 유공자 표창 3명 등)
 - 갯벌참굴 시범사업 참여자 소개 및 출범 선포 등
- 갯벌참굴 홍보 전시물 관람 및 양식어장 시찰 등
 - 갯벌참굴 홍보 전시물 관람 및 시식회
 - 수평망식 갯벌참굴 양식어장 시찰 (현장 안내) 등

다. 행사일정 및 행사장 안내

시 간	내 용	비 고	※ 찾아오시는 길 ※
10:30~11:00	식전행사	이원면 풍물패	
11:00~11:20	개 회		
	국민의례		
	내빈소개		
	개회사	방기혁 한국어촌어항협회장	
	격려사	오정규 농림수산물부차관	
	축 사	국회의원 등	
	환영사	진태구 태안군수	
11:20~11:40	경과보고	한국어촌어항협회(진무이사)	
	장관표창		
	출범인사	갯벌참굴 시범사업 참여자 소개	서산IC → 서산방면으로 좌회전(32번국도) → 평천교차로에서 원북/태안 방면으로 우측방향 (603번지방도) → 이원면사무소지나 3km지점에서 이원방조제방면으로 좌회전 → 행사장(이원방조제 관리사무소, 방조제중간지점)
	퍼포먼스	떡 자르기 및 출범행사 퍼포먼스	행사장 : 이원방조제관리사무소 주소 : 충남 태안군 이원면 관리 산300번지
	기념촬영		문의 한국어촌어항협회 김국주 부장 010-3224-5246 강현정 02-6098-0706
	갯벌참굴 시식		
11:40~12:30	어장시찰		
12:30~14:00	오찬		

1 갯벌참굴 시범사업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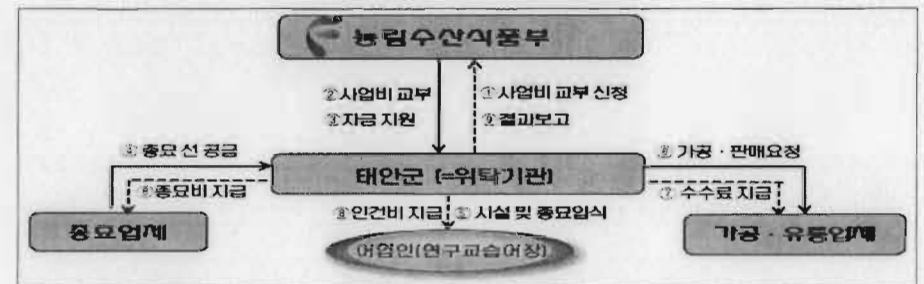
□ 추진배경 및 목적

- 유류피해 어업인의 단기간 내 가시적 소득증대 도출
 - 수출잠재력이 큰 품목(갯벌참굴 등) 발굴·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

□ 추진방향

- 어업인은 생산에 전념, 가공·유통은 전문업체가 전담하는
 '신개념 복합산업 모델' 구축

〈갯벌참굴 시범사업 체계도〉



□ 사업 개요

- 사업주체 : 태안군수
- 사업기간/사업비 : '11~'13(3년간)/90억원
 - '11년 사업비 : 30억원(국비), [※양식장 조성:('11)10 →('12)25 →('13)50ha]
- 사업비 용도
 - 시범사업 종합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·시공
 - 수평망식 양식시설비, 중요입식에 필요한 종패망·양성망 구입비

□ 기대효과('13년 이후)

- 연간 매출 200억원(※갯벌참굴 양식장 50ha×500천패×800원=200억원)
 - 가공 및 유통·포장비 포함
- 새로운 일자리 창출 : 350명
 - 어장관리 100명(2명×50ha), 상품출하 250명(5명×50ha)

2 갯벌참굴 vs 일반참굴

- 기존 덩어리 형태로 키우는 '수하식 양식방법'과 달리,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하여 '수평양식'으로 날개로 생산, 상품가치가 높음(일명 : 각굴)
 - 인천 옹진, 충남 태안 등 21개소(36ha)에서 연간 280톤(14억원) 생산
 - * 국내 일반굴 생산 : 양식면적 약 8,000ha, 약 24만톤(약 1,500억원)
 - 불임처리를 하여 연중 생산 가능(일반굴은 여름에는 생식활동으로 미출하)
 - 일반굴과 10배의 가격차이(500원(100g)/개)로 백화점, Oyster-bar에 납품
 - * 산지어장 출하가격 기준



○ (효능)

- 굴의 주성분은 글리코젠과 아연, 글리코젠은 자양강장에 좋고, 아연은 남성호르몬을 활성화시키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 스테미너를 증진
- 우유보다 200배나 많이 함유된 요오드 성분은 멜라닌 색소를 파괴시키고, 비타민A가 풍부하여 살결을 희고 곱게 만들어 여성분들에게도 인기

* 굴이 식탁에 없으면 식사를 하지 않을 만큼 즐겼다(클레오파트라)

** '굴은 살결을 곱게 하고 얼굴빛을 좋게 한다'고 기록(동의보감)

【외국의 갯벌참굴 양식사례(프랑스)】

- 역사 : 나폴레옹 시대(1,800년대) 이후 양식본격화(200여년)
 - * 루이14세대에는 굴 판매점이 파리에 2,000여곳이 넘었다고 함
- 현황 : 18,000ha에서 연간 13만톤 양식굴 생산
 - 3,000여개 굴 관련회사가 있으며, 연간 40~50억개 소비
 - * 프랑스, EU, 미국, 일본, 호주, 캐나다, 러시아 등지에서 Oyster 전문 고급 레스토랑 급속 확산

3 우리나라 갯벌면적 및 이용현황

-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갯벌(25만ha)을 보유하고 있음에도
 - 그 이용은 연안 어업인들이 「수산업법」에 의한 마을어장, 일부 패류·해조류양식어장으로 면허받아 영위
- 수산물 생산방식은 대부분 바지락·동죽·가무락·고막·낙지 등 단순 자연산 위주의 생산으로 생산성은 낮은 수준
 - 갯벌 면적(25만ha) : 마을어장(14만ha, 57%), 보전(7ha, 28%), 유·휴·방치(4ha, 15%)
 - 갯벌 수산물 생산실적 : ('90) 165천톤/1,613억원 → ('10) 77/3,256(△53.3%)

<갯벌의 이용 및 관리 현황>

구 분		면 적(ha)	비고(관련법령)
총 계		248,940	-
해양공원		52,150	자연공원법
습지보전		17,250	습지보전법
수 산	소계	142,578(57%)	수산업법
	마을어장	118,813	
	면허어장	23,765	
기타(유·휴)		36,962(15%)	

□ 향후 2020년까지 갯벌참굴 38백ha, 해삼 75백ha 등의 개발계획

- 국민생활 수준향상 등으로 '20년 국내 수산물 수요는 480톤으로 예측되나, 공급은 약 70%인 330만 톤으로 전망됨
- 고부가가치 갯벌참굴, 해삼 등을 집중·육성하면 갯벌 수산물 생산이 '10년도 수산물 총생산의 2.5% 수준에서 '20년 15.4%로 증대될 전망임
- 갯벌 수산물생산 전망 :('10) 77천톤/3,256억원 →('20) 510/4조원
- 갯벌생산량/총생산량 : ('90) 5.2% → ('00) 3.7 → ('10) 2.5 → ('20) 15.4

<수산물 생산 및 소비 전망>

(단위 : 천 톤)

구분	1990	1995	2000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15	2020
생산(a)	3,198	3,348	2,514	2,714	3,032	3,275	3,361	3,182	3,111	3,204	3,327
- 연근해	1,472	1,425	1,189	1,097	1,109	1,152	1,285	1,227	1,133	1,235	1,283
- 양식	773	996	653	1,041	1,259	1,386	1,381	1,313	1,355	1,322	1,373
- 원양	919	897	651	552	639	710	666	612	592	616	640
소비(b)	2,328	2,666	2,705	3,947	4,469	4,497	4,166	3,834	4,172	4,502	4,771
부족량(a-b)	870	682	-191	-1,233	-1,437	-1,222	-805	-652	-1061	-1,298	-1,444
갯벌생산(c)	165	121	93	105	57	102	38	94	77	255	511
대비(c/a)	5.2	3.6	3.7	3.9	1.9	3.1	1.1	3.0	2.5	8.0	15.4

• 자료 : 통계청, ¹⁾2010년 소비량은 KMI 수산물 자급률 도입 타당성 및 현실화 방안 연구, 2011.

<수산물 생산금액 전망>

(단위 : 억 원)

	1990	1995	2000	2005	2006	2007	2008	2009	2010	2020
총 생산	24,182	37,963	40,664	50,493	52,859	57,519	63,451	69,242	74,257	119,422
갯벌어업	1,613	2,668	2,065	2,993	2,400	2,619	1,744	3,555	3,256	40,000

□ 현재 갯벌참굴은 21개소 36ha에서 연간 약 280톤(14억원) 생산

- 1ha이하의 소규모 시설로 경제성 있는 어업은 곤란(생산성 낮음)
- 소비 동향 : 전량 국내소비 (500원/100g/패)
 - 국내 : 호텔(10개) 56톤, 레스토랑(80개) 224톤
 - 수출 : 최소 수출물량(2천만패, 40ha) 미달로 곤란
- 일본 buyer(토센보, 이토츠상사)는 수입 전 판촉 및 홍보활동 등을 감안할 때 사전에 연간 최소 물량 2천만패 보장 요구(실제 연간 3억개 요구)

□ 향후 2020년까지 갯벌참굴 38백ha개발, 19만톤, 1조5천억원 생산계획임

- 특히, 마을어장 등 적지를 선정, 생산지역을 10ha이상 단지화하여 과학적 관리로 집중 육성, 경제성 있는 어업 실현계획

<주요 갯벌참굴 타겟시장>

- 주요 소비국 : 일본, 중국 등
 - 굴 소비 물량은 많으나 대부분 신선 알굴 형태로 소비되고 일부는 각굴로 소비, 홍콩의 경우 외국인 및 상류층 레스토랑에서 활굴 형태의 소비성향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
- 잠재 소비국 : 프랑스, 미국 등
 - 굴 전문 레스토랑(Oyster Bar) 등에서 각굴 형태로 소비성향 높음

<단계별 수출 가능 대상국>

- 단기('12~'13) : 일본, 홍콩, 중국 등
- 중기('14~'16) : 프랑스, 독일, 이탈리아, 동남아 등
- 장기('17~'20) : 미국, 중동, 기타유럽 등

[참고] 홍콩시장 진출을 위한 갯벌참굴 홍보결과(박람회 참가)

□ 박람회 개요

- 기간/장소 : '11.11.30~12.3/홍콩전시컨벤션센터
- ※ 한국, 인도네시아, 필리핀 등 5개국 90개업체 참여

□ 박람회 결과

- 바이어 상담 및 시식행사 실적 : 40여개 업체
 - 다른 수입산 굴에 비해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신선하고 짜지 않으며 씹는 식감이 매우 좋다는 반응, 계속 시식 요청
 - 또한 일부 바이어는 샘플을 요청하고 거래호텔내 요리사, 회사 책임자 등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

□ 주요성과

업체명	협약내용
Cathay Pacific Catering Services	- 항공사 라운지, 가내식공급(생굴 조리된 굴) 희망, 가격 및 물량 협상 * Cathay Pacific 포함 30개 항공사 식재료 납품
Van Yu Trading Co, LTD	- 굴 수입 요청, 이메일로 가격 등 협의 예정
JJ Trading	- 아일랜드산 활굴(주당 4천 패각) 수입업체로 홍콩내 납품 희망
Grand Harbour	- 중국 광저우지역 수입업체로서 공급 유통가능성
Melco Crown Entertainment	- 호텔카지노내 공급검토(80~100g의 샘플 50개 지급) - 통관절차 검토 및 중금속 및 방사능 검사자료 요구
Dah Chong Hong LTD	- 갯벌참굴을 냉동상태로 자사의 슈퍼마켓으로 유통희망 *시험적으로 6개월간 월 10만패 공급가능성 타진
Good View Group	- 갯벌참굴 자료 및 정보제공, 수입에 따른 통관절차 등 협의 요망
Hong Kong Chamber of Seafood Merchants Ltd.	- 홍콩내 유통업자 및 레스토랑 관련 업자들에게 갯벌참굴에 대한 소개와 추천을 약속

□ 시사점

- 홍콩은 약 700만명의 국민과 연간 약 4000만명의 관광객 등 많은 인적자원을 보유, 대다수의 바이어들은 갯벌참굴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았음
- 특히 상품성 측면에서 홍콩내 외국산 활굴과 경쟁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의견을 보임

- ◆ 홍콩내 Oyster BAR는 약 50여 개소가 소재, 주로 외국인 및 상류층의 많은 고객(2-3주전 예약 필요)들이 활굴을 즐겨먹음(홍콩내 연간 소비량 1억패 정도)
- 홍콩 Oyster BAR에서는 활굴 1패당 12,000원~13,000원 정도

6

「갯벌어업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법률」 추진상황

(11.11.17 국회 상임위 상정, 현재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중)

□ 제정 이유

- 현행 『수산업법』에 따라 갯벌을 이용하는 마을어업, 패류·해조류 양식어업 및 맨손어업 등은 자연산 수산동식물을 단순 포획·채취하는 소극적 어업으로 생산성 저조, 어촌경제 침체
- 또한 갯벌어장은 대부분 어촌계, 수협 소유 어장으로 배타적으로 관리, 신규투자 및 새로운 인력진입 곤란
- 따라서 유희, 방치된 갯벌에 부가가치가 높은 갯벌참굴, 해삼 등의 새로운 품종을 적극 양식하고, 「수산업법」상의 어업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대규모 외부 자본투자 및 신규 인력 진입을 허용, 어민 소득증대 및 어촌경제 활성화 도모 필요

수산업 도약에 필요한 성장 동력 부족 및 한계 노출

- ▶ (생산) 잡는 어업은 생산 한계('00년 120만톤 → '10년 120만톤), 수산양식은 내만 적지 대부분 개발 → 친환경 새로운 어장 필요
- ▶ (고령화) 새로운 소득창출 미흡 등으로 어촌이탈 등 심화(65세 이상 24.8% '20년 63% 이상 예상) → 수산의 미래 불투명
- ▶ (제도) 어업생산 면허허가 제도는 기득권자에게 유리 → 진입장벽으로 작용 →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의 유입 저해
- ▶ (보조금) 전통적 지원 방식(보조 또는 용자) → 담보력 부족,부채 증대 및 정부 의존도 상승 → 자립형 산업 육성 애로

□ 법률안 주요내용

- 1) 갯벌, 갯벌양식어업,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 등의 정의
 - 갯벌을 간석지와 간석지에 접한 마을어업 한계 수심 이내의 구역으로 정하는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
- 2) 갯벌양식어업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
 - 농식품부장관은 갯벌양식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, 시·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
- 3)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 지정·운영
 - 시·도지사는 갯벌양식어업의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를 지정하고, 갯벌양식어업관리·이용 규정을 정하여 육성 지원
 - 생산지구(이용가치 높은 구역), 중요육성지구(중요의 산란·서식 구역)
- 4) 갯벌에 관한 연구·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
 - 갯벌양식어업 육성 및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고, 전문 인력 및 어촌지도자 양성 교육 실시
- 5) 마을어업에 양식어업 허용(수산업법 일부개정안)
 - 마을어업은 자연산 위주 생산으로는 활용도가 낮고 생산성이 저조함으로 마을어장 중 갯벌양식어업육성지구로 지정된 어장은 갯벌참굴 등 특정품종 양식허용
- 6) 어업권 임대차 금지 예외범위 확대(수산업법 일부개정안)
 - 어촌계원·지구별조합원에 한하여 허용되어온 어업권의 임대차를 그 어업인으로 구성된 어업회사법인이나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관리를 허용, 대규모 신규자본 유치 및 젊고 유능한 인력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함

□ 법률제정 효과비교

구 분	현 행	법제정 후
갯벌어장 이용방법	○ 마을어업, 패류·해조류양식업, 맨손어업 - 바닥의 단순 자연산 채취	○ 마을어장, 양식어장에 갯벌양식어업 추가 - 마을어장 등 유희, 방치어장에 갯벌참굴, 해삼, 낙지 등 특정품종 집중 양식
대상수면	○ 갯벌 142천 헥타(마을 118, 패류양식 24) - 전 갯벌 248천 헥타의 57%	○ 좌 등 - 필요시 마을어업권 확대를 통해 갯벌어업 확대 가능
어업권 행사방법	○ 어촌계의 계원,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⇒ 외부인력 진입불가	○ 어촌계의 계원, 지구별 수협의 조합원 ○ 어업회사법인, 또는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에 위탁관리 가능 ⇒ 외부 신규인력 진입 용이 ※ 위탁관리시 어업인 공동참여
외부투자	○ 외부투자 불가(어촌계원 및 조합원만 이용)	○ 대규모 외부투자 유치 가능 - 어업회사법인 100/90 투자 가능 -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·단체 직접투자
기술개발	○ 수산과학원, 해양연구원 - 수산연구에 포함 갯벌 형태, 서식생물 조사 수준	○ 정부의 갯벌어업 육성정책에 따라 다양하고 전반적인 갯벌어업 집중 연구 추진
전문인력 양성	○ -	○ 향후 5년간 전문인력 150명, 어촌리더 2,500명 양성
고용효과	○ 현지어업인 참여	○ 현지 어업인 + 고용 약35천명(5년 후 연간), 쿼어 인구 증가전망 - 갯벌참굴 17천명, 해삼, 9천명, 기타 9천명
갯벌수산물 생산액	○ 3,200억원	○ 향후 2020년까지 개발시 연간 4조원 생산효과(갯벌참굴 1.5천억원, 해삼 1조원, 기타 1.5조원)